

시진핑(習近平) 리더십, 위기인가?

한석희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shan65@yonsei.ac.kr

I. 시진핑 정부의 내우외환(內憂外患)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망국의 길을 걸었던 중국의 역사를 교훈 삼아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국내 불안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해 왔다. 명(明)과 청(淸)의 몰락은 내우외환으로 인한 국가붕괴의 전형으로 볼 수 있으며, 1949년 국민당의 패배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도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 내부의 혁명 성공과 소련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외부적 지원이 결합하여 파생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을 맞는 시진핑 정부도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송환법(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며 정부와의 대치를 장기화하는 홍콩의 데모,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재선과 양안관계의 긴장,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시진핑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부로부터의 도전은 가히 내우외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감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 네 건의 사건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중국정부를 독립적으로 위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네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중국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강압적 대응이 오히려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국의 국가재난상황은 중국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 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전들은 결국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슈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2020년 초반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내우외환이 결국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로 귀결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II. 체제 위기의 구조적 요인: 시진핑 리더십의 이중성

현 단계에서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설적으로 시진핑의 리더십이 과도하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를 통하여 마오쩌둥(毛泽东)에 버금가는 '일인 절대권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중국 공산당 당장(党章)의 수정 과정에서 자신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기재함으로써 마오쩌둥에 준하는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을 통치해 왔던 5명의 지도자 중 주창자의 이름이 명시된 사상에 당장에 삽입한 지도자는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마오쩌둥의 권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邓小平) 이후 지금까지 중국정치 운용 과정에서 집단 지도체제의 유지에 기반이 되었던 국가주석의 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일인 절대권력 체제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절대권력을 확립하고 영속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동시에 마오쩌둥과 같은 수준의 권위를 갖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있었다. 즉, 중국 국민 대다수는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이 자신의 사상을 당장에 등재하고 일인 절대권력을 구축·운용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마오쩌둥과 비교해서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시진핑이 왜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랐으며,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8년부터 자신이 마오쩌둥 수준의 권위를 누릴 만한 리더십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4가지 사건의 발생으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며,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III. 체제 위기의 조건적 요인: 경제와 통일

일반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변함없는 중국의 국가목표 중 하나가 경제발전이며, 특히 정치개혁 없는 국가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의 중국 개혁·개방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금융위기설, 부채폭발론, 부동산 버블 붕괴론 등 다양한 경제위기 경고에 시달려 왔으며, 이들 지도자들이 이 위기를 피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온 이유는 경제발전 그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경제발전을 통하여 지도자 자신들의 리더십 강화와 정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적절히 처리해서 중국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리더십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의 통일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중국영토의 통일이라는 과제가 지도자로서의 큰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반환을 국가적 과업으로 인식해 왔다. 물론 1997년과 1999년에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을 적용하여 50년 동안 자율통치를 허용한 이후 중국에 완전반환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의 원만한 반환이 통일에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또한 중국은 일국양제를 홍콩과 마카오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한 이후 이를 타이완에 적용하여 평화로운 타이완의 반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발생한 홍콩시위 사태와 그에 영향을 받아 차이잉원이 타이완 총통에 재선된 사건은 중국의 통일을 향한 일국양제 운용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을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위기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홍콩시위와 타이완 총통선거를 중국의 통일과 연결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홍콩시위의 표면적인 이유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반대이다. 홍콩시민들은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정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反중국 정치활동가나 체제 비판자들이 해당 법에 의거하여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의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 게다가 중국정부의

강경한 시위진압은 시위를 진정시키기는커녕 평화적인 홍콩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오히려 홍콩 내의 反中정서를 자극하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홍콩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이 중국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타이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사실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차이잉원 총통은 역대 총통 중 가장 인기없는 지도자(지지율 28%)로 평가되었으나, 홍콩시위가 본격화된 2019년 6월 이후 그의 탈중국 성향이 다시 지지를 얻으면서 결국 2020년 1월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한귀위(韓國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57.1% 득표). 이렇게 선거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이루게 된 원인은 일국양제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불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으로의 반환과 함께 일국양제를 실행하고 있는 홍콩의 상황을 주목해 온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홍콩사회에서 반중데모가 장기화·폭력화되고 이에 중국이 강경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일국양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으며 결국 차이잉원의 재선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통일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중국의 통일문제를 시진핑 정부가 미숙하게 처리하여 중국이 원하는 반대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중국 국민들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감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요소이다. 특히 홍콩사태가 아직 완전히 진정된 상황도 아니고 재선 이후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에 좀 더 도발적인 태도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중국의 통일문제가 지속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부담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홍콩·타이완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폭력 및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상존하는 위험성이며, 이러한 위험이 결국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핵심적 이슈는 중국경제에 대한 타격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을 비롯하여 관세, 기술, 환율 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전면적인 경제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전반적인 경제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8년(6.6%)과 2019년 경제성장률(6.1%)에서 보듯이 점차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부진과 투자감소로 기업도산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업률도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부채 증가에

1) 일국양제 원칙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천명했던 원칙으로, 그 주요 내용은 중국이 향후 50년간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와 사법독립, 언론자유 등을 보장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다른 금융부실,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 등은 경제문제가 사회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 국민들이 정치개혁 결여에서 오는 불만을 경제발전에서 오는 경제이익으로 대치해 왔기에 이러한 경제하락이 갖는 위험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경제하락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재 중국 사회 내에서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디커플링이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수교 이후 지난 4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동반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차이메리카(Chimerica)²⁾의 종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나타나는 디커플링 현상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탈출을 들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애플, 휴렛팩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 밖에서의 생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사슬이 새로운 형태의 공급사슬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커플링은 중국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타격은 중국 사회의 불안정, 그리고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은 이미 약화된 경제에 또 한번의 충격이 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2020년도 경제성장률이 적어도 0.5%는 충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 그리고 무책임에서 비롯된 불만이 더해져서 사회불안정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시진핑 리더십에 더욱 부담을 주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미중간의 오랜 상호의존으로 양국 간의 디커플링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탈출을 서두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대안적 생산기지를 만듦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디커플링의 진행으로 경제약화 및 사회불안정은 시진핑 리더십에 부담이 되고 있다.

2) 차이메리카란 중국과 미국이 생산과 소비로 역할을 나누어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를 말한다.

IV.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통일문제와 중국의 경제문제가 정말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을까? 최근 신문·방송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이슈들의 심각성을 보도하면서 이를 시진핑 주석의 위기와 연결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지적하듯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미중경쟁, 홍콩시위, 타이완 선거 등 민감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내방역 위기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악화는 이미 악화되어 있는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대정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이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로 전이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도전할 만한 내·외부의 세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도전받기 위해서는 당내세력에 의한 도전이나 당 외부 사회에서의 시위 등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도전이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집정 1기(2013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반부패운동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던 상하이방(上海帮)이나 공청단파(团派)의 핵심세력들이 모두 숙청되었고, 따라서 현재 이들 세력들은 너무나 약화되어 시진핑 주석의 권력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경제운용 및 통일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책임을 물어 사회 내에서 시위 등 불만표출을 시도하는 것도 그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랫동안의 여론 유도와 책임회피로 이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중국 공산당이 중국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중국의 모든 미디어들을 이용하여 모든 문제의 책임을 관료 및 지방정부로 돌리고 시진핑 리더십의 무오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중국정부의 사회통제력은 아직까지 살아있으며 적어도 최근의 이 네 가지 사건으로는 사회불만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그 예로 최근에 발행된 중국 내외의 미디어들을 검토해 보면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를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들은 대부분 중국 이외의 미디어들에서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내부의 미디어들은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의 대규모 동원능력을 들 수 있다. 시진핑 리더십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 중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사회불안정 및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의 물량동원이 효과적이다. 중국경제가 하강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충분한 경제동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물량동원은 경제상황을 완화시키는 효과와 함께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 및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국사회가 반정부적 상황으로 하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 홍콩시위, 타이완 선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리더십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사회 통제 능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의 사태들이 시진핑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